

오순절 후 열네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9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41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6 번 (시편 9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고전(1 Corinthians) 15:9-11</b>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은 혜”	찬양대
설 교 Sermon	<b>“헛되지 않은 은혜” (His Grace Was Not in Vain)</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직 예수 뿐이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92 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41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곡되고 식어진 사랑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은

어느새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24: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개역개정 **고전15:10**)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NIV **1 Corinthians 15: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3 (주일)	9/4 (월)	9/5 (화)	9/6 (수)	9/7 (목)	9/8 (금)	9/9 (토)
	삼상27	삼상28	삼상29,30	삼상31	삼하1	삼하2	삼하3
본문	고전8	고전9	고전10	고전11	고전12	고전13	고전14
	겔6	겔7	겔8	겔9	겔10	겔11	겔12
	시44	시45	시46,47	시48	시49	시50	시5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6수 오후7:30)	“영성의 갈” (3)-“언어와 침묵의 영상” (약32)
토요 새벽기도회 (9/9토 오전6:30)	“내가 살게 하소서” (시119:73-80)

지난 주일(8/27) 말씀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1-25)

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거룩함의 의미/개념”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었던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음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를, 때로는 “철저한 금욕적 삶”을,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회복과 치유”를 거룩함이 드러나는 참 모습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사람들은 “거룩함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했고, 또한 강조되었던 부분도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 보다도 “거룩함”을 먼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19 장 2 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고 말씀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마로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3)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적게 짓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 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쓴 복음주의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Gary Thomas) 목사님은 거룩함이란? 1)먼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며, 2)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문별하고, 선한 것은 끝까지 붙잡으며, 또한 악한 것은 분명히 거부하는(살전 5:21-22) 신앙의 가지 치기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